

6/23/19

설교 제목: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7:24-30

- (막 7: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절관주** 마 15:21
- (막 7: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 (막 7: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 (막 7: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절관주** 마 10:15, 행 13:46
- (막 7: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 (막 7: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 (막 7: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본문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새출애굽 표적들 중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이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강화하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리셨습니다.

논쟁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고 논쟁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통해 논쟁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뒷바침 하십니다.

즉 부정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활동 무대를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북서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이 위치해 있는 보니게 지방으로 옮기십니다.

(막 7: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서는 두로에 도착하셔서 우선 조용히 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거기서도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막 7: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막 7: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인은 수리아의 베니게에 사는 여인으로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간구했다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 어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 답지않게 냉정히 거절을 하십니다.

(막 7: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유대인이 우선이기에 이방인에게 돌아갈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서는 왜 귀신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이 이방 여인의 면전에다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고쳐주셨는데

.....

그리고 안 고쳐 주실려면 좋게 말씀하셔서 돌려보내면 될 텐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시다니요.

아마 주위가 썰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고 이방인인 그녀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이방 사역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비유 말씀에 대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혜롭게 응수합니다.

(막 7: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에도 겸손히 "주여 옳소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런 후 '마는' 이라는 접미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견을 피력합니다.

이 여인은 개들이 감히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먹을 수는 없지만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고 모멸스러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딸의 치유를 위해 끈질기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특권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방인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녀인 유대인의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며 동시에 식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주장은 구약 성경에서 보장하는 이방인의 권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레 19: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 19: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곧 이방인을 위하여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것은 남겨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곧 이방인을 위하여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이 배려하신 이러한 이방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은 이방인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막 7: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막 7: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15: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믿음이 크다고 하시며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여인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과 지혜로운 언행은 그녀로 하여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계시해 보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의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써 이방인이 새출애굽에 참여하고 이방 지역이 새출애굽의 땅이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새출애굽 때에 이 땅에서 발생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속 13: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은 새출애굽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새출애굽 때 이 땅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새출애굽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출애굽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땅에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에도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말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성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이방인을 포함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출애굽에는 이방인과 이방 땅이 포함됩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유대인들과 함께 새출애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모욕적인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고난이나 굴욕도 감당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